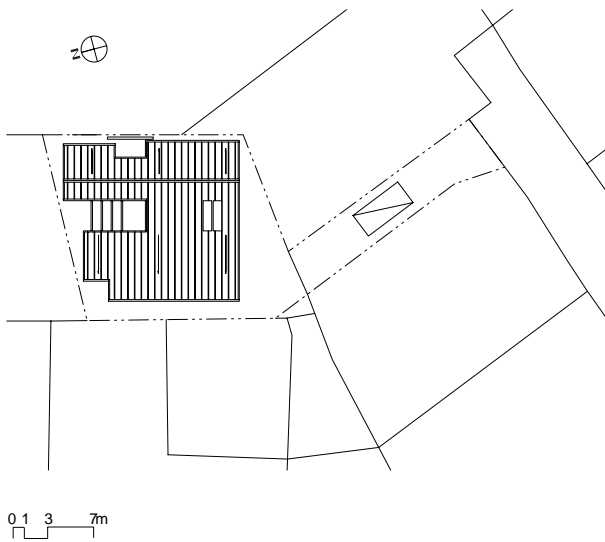


민마루 6(소나무주택)

Minmaru- VI (Pine tree hous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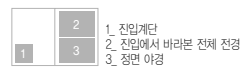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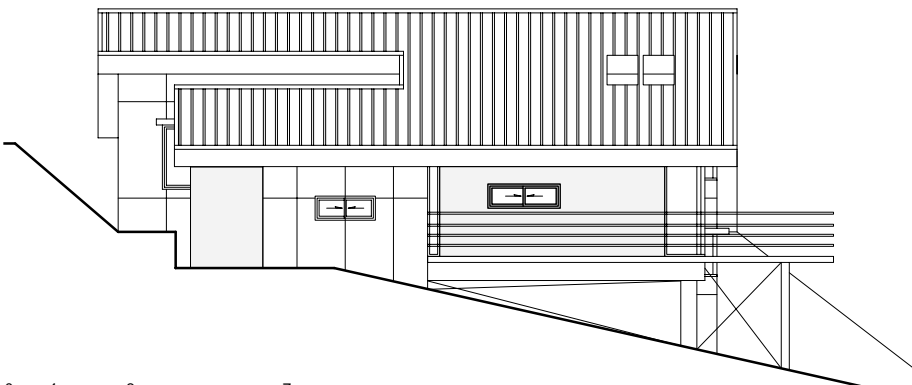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450-11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89,00㎡
건축면적	126,72㎡
연면적	164,55㎡
건폐율	35,44%
용적률	42,30%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경량목구조
내부마감	T,9.5 석고보드 위 지정벽지 마감, T,16미송루버(노출형)
외부마감	T,12CFRC보드, T,180비동, T,22복층유리
구조설계	박덕환
설계담당	이기호, 권오열
시공사	가외디자인



Location	450-11, Pung-dong, Ilsan-gu, Goyang-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389,00㎡
Bldg. area	126,72㎡
Gross floor area	164,55㎡
Bldg. coverage ratio	35,44%
Gross floor ratio	42,30%
Structure	R,C, Wood
Bldg. Scale	two stories above ground







0 1 3 7m

서측면도

- | | |
|---|--------------|
| 1 | 진입계단 및 현관 |
| 2 | 현관 및 계단실 |
| 3 | 우측면에서 본 입구진경 |

논리는 의론이나 사고, 추리 따위를 이끌고 나가는 조리 또는 사물 속에 있는 도리,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워 논리적 혹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추론이나 객관화를 통해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많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집착,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모듈화되어야 하고, 짜여진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결정만 반복하는 것이 요즘의 삶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서 가장 제대로 벗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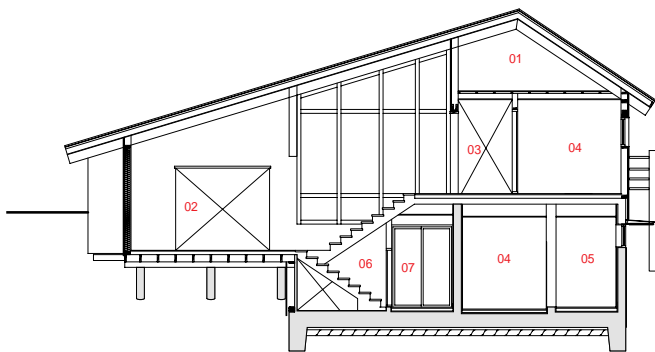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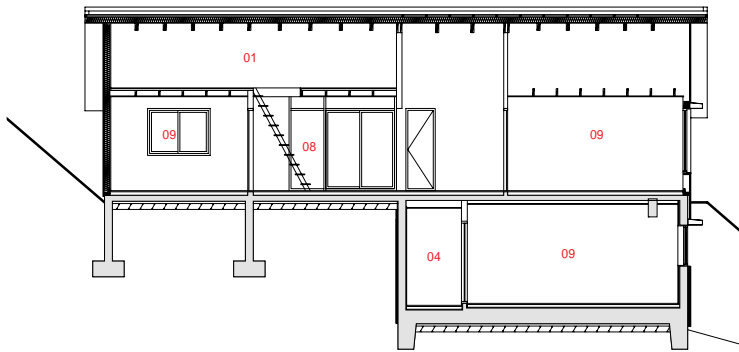
수 있는 것이 주택이다. 주택은 주인의 걸음걸이에 맞춰지고, 시선에 맞춰지고, 재미난 습관에 맞춰지고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진다. 여기에 비취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증이 논리의 틀이라면 주택은 가장 좋은 건축사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민마루 주택들이 그런 강박에서 다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나무집이란 사실이다. 그간 주로 사용해왔던 재료가 아니었기에 겸손하게 땅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민마루 주택들의 특징이라면 일단 어떠한 울도 담도 쌓질 않아 심리적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이다. 도시 삶

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동물적 본능으로 지켜오던 이들에게 어쩌면 형식적 경계를 허물어 내 자신의 속내를 모두 벗을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제공한 것이다.

이 집은 민마루 단지 내에서 현재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원거리에서 랜드스케이프의 성격을 띠고 있다. 3년여 전쯤에 지어진 폐침묵 집을 허물고 지은 이집은 주변 다른 집들에 비해 소나무가 다소 많은 편이다. 공사 중 다른 집들과 구분하려 소나무집으로 불렸던 것이,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는 자식들의 소망과 소나무의 이미지가 어울려 당호로 자

- 01_ 다락방
- 02_ 거실
- 03_ 복도
- 04_ 화장실
- 05_ 창고
- 06_ 부엌
- 07_ 홀
- 08_ 가족실
- 09_ 방



단면도





리 잡게 되었다.

소나무집의 두 개 매스는 각각 다른 성격의 스페이스로 구성되고 경사지붕으로 통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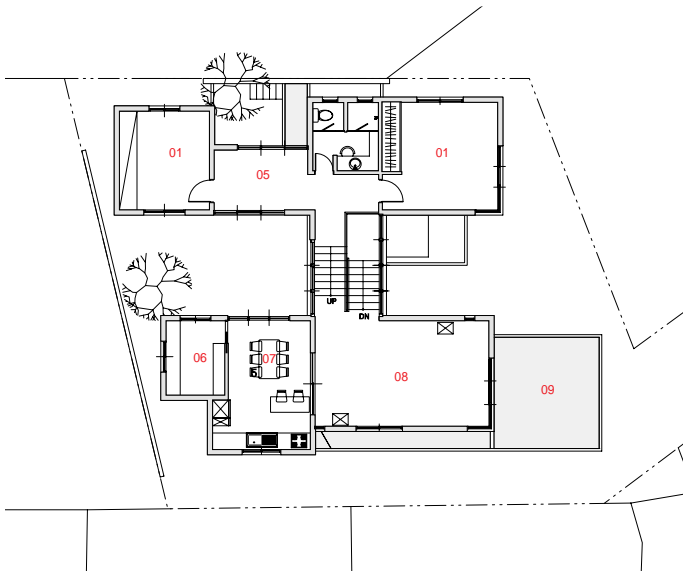
산이 가진 원래의 경사형태를 보존하고자 방부목 말뚝기초로 전면에 위치한 거실과 부엌을 띄운 구조로 했으며, 단면은 반 층씩 물려있어 경사에 따르는 공간이 전개된다. 원룸인 지하 사랑방에서 반 층 위의 거실 공간 그리고 반 층 위의 침실공간으로 접근하게 되어 건물은 각기 다른 영역성을 지닌 다양한 레벨의 공간이 되었다.

경사가 급한데다가 높은 곳에 있어서 전망은 좋으나 공사 시 소음반이 많아서 공사비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치밀한 공정계획과 공사계획 공정의 합리적인 단순화 등을 통한 경비절감, 상이한 두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단열, 방수의 기밀을 위한 디테일이 다른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필요했다.

재료의 선택에서는 기존에 흔히 보아왔던 목조주택의 지붕재료인 아스팔트 싱글이나 시멘트 또는 비닐류의 사이딩 위주의 외장재는 벗어나 보고 싶었다. 거창하게 목조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서양식 목조주택의 답습에서는 탈출해야 한다는 강박과 반 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재료의 선택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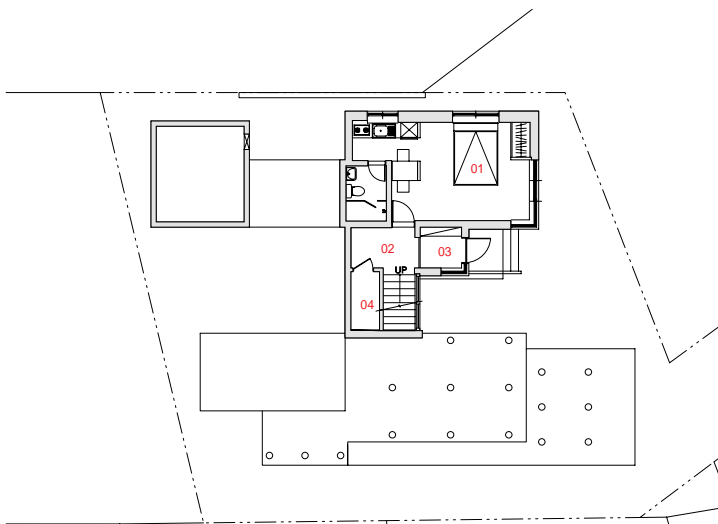
집의 수명이 대개 20년쯤이라 치면 적어도 10년에 한번쯤 같거나 5년에 한번쯤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재료정도라도 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내외장재를 선택했고 그에 적절한 디테일을 만들고자 했다. ㉮

- | | |
|---|---|
| 1 | 3 |
| 2 | 5 |
1. 뒷마당공간
 2. 좌측면에서 본 거실데크
 3. 환관 및 계단실
 4. 계단실에서 바라본 거실
 5. 거실



2층 평면도

- 01_ 방
- 02_ 욕실
- 03_ 현관
- 04_ 창고
- 05_ 가족실
- 06_ 다용도실
- 07_ 부엌/식당
- 08_ 거실
- 09_ 데크



1층 평면도

